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주제로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주제와 강사 확정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에서 개최하는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9월 7일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번 학기의 주제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다. 14학기 세미나에서는 위경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의 강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 2교시는 작금의 갖가지 위기를 진단해 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특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강의 제목과 강사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송실대 김영한 교수),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 (연세대 노정선 교수), ‘국방의 위기와 안보’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송영대 회장),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 (한남대 김세열 총장),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 (사랑종합법무법인 나석호 변호사), ‘사회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연세대 박영신 교수), ‘교육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기독교대학연맹 이원설 이사장)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이 새로와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새로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성숙을 돕기 위해 1992년에 개원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그간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현대사회와 교회’ 등 한국교회 갱신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총 14학기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 학기 700 ~ 800명의 전국 목회자가 교파를 초월하여 참석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이 세

미나는 목회자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교회의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제 1 교시	제 2 교시
느헤미야서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한국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 유경재 목사 (안동교회)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김영한 교수 (송실대)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 노정선 교수 (연세대)
	국방의 위기와 안보 송영대 회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 김세열 총장 (한남대)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 나석호 변호사 (사랑종합법무법인)
	사회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박영신 교수 (연세대)
	교육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이원설 이사장 (기독교대학연맹)

호산나찬양대 새 지휘자

박경희 권사(12교구, 대학부 교사)가 1년간 호산나찬양대 지휘를 맡게 된다. 그간 호산나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던 서희숙 집사는 1년간 해외 연수차 출국한다.

서울시민대학 제 2기 수료식

서울시민대학 제 2기 영업직 취업준비과정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 3층 예배실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서울시민대학 2기과정에는 7명의 강사가 판매직의 비전, 영업의 기본자세, 프로세일즈맨십, 현대인의 스트레스관리, 고객관리 방법 등을 다뤘으며 경건의 시간, 취업 유망업종 소개 등의 순서도 가졌다.

이번 주 청년부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3일(월) - 6일(목) 3박 4일간 속초의 추양수양관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이며 강사는 김정현 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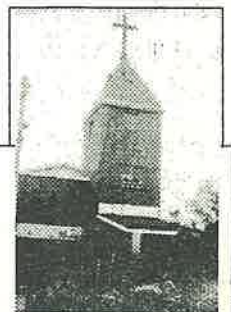
장로수련회, 14-15일 개최

장로수련회가 8월 14일(금) - 15일(토) 충북

영동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 출발은 14일(금) 오후 4시이다.

다락방 공부 8월 휴강

방학과 휴가 기간인 8월 한달 간 다락방 공부의 쉬게 된다. 교구위원회에서는 다락방장들에게 전화 심방으로 다락방을 돌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촌전도대
봉사
D-9!

- ▶기간 : 8월 11일 - 14일
- ▶장소 : 충남 서천 청운교회
- ▶분야 : 전도, 의료·미용, 교육(성경학교)
- ▶신청 : 사무국

사무국에서는 봉사에 필요한 전도용 물품, 생필품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사야 강해

무너지는 이스라엘

이사야 9장 8 - 12절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주가 오신다는 예언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죄(9:8-12), 정치의 부패한 죄(9:13-17), 사회적(9:18-21), 도덕적인 죄,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 죄(10:1-4)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낱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네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마지막에는 후렴처럼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를 찾으며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1. 교만한 죄와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교만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형제 유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려했습니다. 이는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쑥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무시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죄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처음에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박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알지 못하고 거듭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 회개하지 않는 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이 굳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잠 29:1).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질병이나 나

라에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책망을 받으면서 아직도 목이 굳어 있다면 우리는 급하게 망할 것입니다.

한편 미지근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도무지 큰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은 앗시리아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국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앗시리아를 들어서 북 이스라엘도 치시고 남 유다도 치시므로 모두 망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께서 아람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들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니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라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9:8-12)



이중운 목사

사람은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나게 되면 죄가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게 되며 그런 사람은 결국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체험은 뜨거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바로 이 회심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은 언제까지나 미지근한 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교활한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며 진실한 회개의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3.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올 결과

르신은 다메섹의 아람 왕이며 르신의 대적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를 않고, 진노의 팔이 건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섯죽은 동쪽을 앞이라고 하고 서쪽을 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전에 동맹군이던 아람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그들을 치려고 하고 서쪽에는 역사적으로 원수로 삼던 지중해 연안에 사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누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피할 길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실 때 갑자기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66 인터넷에서 성경을

이영조 집사(고등부 교사)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줄은 미처 몰랐다.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성경말씀 중 구절 전체가 잘 기억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또는 어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지 몰라 애태우는 일도 있다. 교회학교 공과를 준비하다보면 한·영 대역이 필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때로는 다른 번역을 보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 인터넷을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신 성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 모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린다.

순서 1 먼저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 접속은 천리안, 나우누리, 케텔(KETEL) 등의 PC통신을 통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망에 가입하여 할 수도 있다.

순서 2 <http://www.idetect.com/~bible>을 찾아간다. site이름을 바로 찾아갈 수도 있고 <http://SEOUL NET>에서 '사회'란의 '기독교'를 click하여 "한영성경검색"을 찾아갈 수도 있다.

순서 3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시스템소개' 및 '사용법'에 들어가면 사용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다.

1) 성경찾기: 00서 XX장 (XX절)을 한글, 영문, 한영대역 등으로 찾을 수 있다.



2) 성경검색: 구절이 나오는 성경을 검색할 수 있다. 예) '포도원'과 '품군', '천국'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은? → 마태복음 20장

3) 성경읽기: 원하는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다.

4) 성경번역: 원하는 부분의 번역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 한글의 경우 개역, 공동, 표준; 영문의 경우 NIV, KJV, NASV.

5) 찬송가 검색: 장 번호순 또는 제목순으로 나열된 목록에서 원하는 찬송을 선택하여 가사를 볼 수 있고, 장치가 있으면 반주를 들을 수도 있다.

주의 할 것은 인터넷에도 이단 집단이나 타종교의 site가 자리잡고 있으니 불필요한 호기심은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원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E-mail ywdir2@ssy.co.kr (☎ 553 - 85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망부수련회를 마치고

120세 산 모세처럼, 어린 아이처럼

윤운식 집사(소망부 교사)

소망부 '학생들'께서 수련회에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셨던가 보다. 17일(목) 오전 소망부 어르신들과 함께 떡이며 과일과 불고기를 실은 버스와 승용차의 행렬이 경기도 대성리 샬터호반을 향해 신나게 달렸다. 파란 하늘과 여름날씨답지 않은 산들바람에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잔뜩 들떠 계신 어른 학생들을 보니 교사들의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졌다.

울창한 숲과 북한강의 넘실대는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광경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고 강당에 들어가 말씀을 받았다. 우심화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늘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다. 소망부 학생들은 이미 새로움의 은총을 입은듯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들 덕에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시간을 마친 후 찬양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껏 뛰며 웃는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잔치 모습이 이럴 것이라는 상상을 자아내게 했다.

이종운 목사님께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120세까지 산 모세의 3단계 인생 여정을 말씀하실 때 소망부 학생들의 얼굴에는 아마 모세만큼 살고 싶으신지 소망의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태양이 서서히 기우는 가운데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며 서울에서 못 느끼는 상큼한 냄새와 시원함을 담뿍 담아가지고 자리를 뜨려니 아쉬움이 남았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뵈며 교사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고 느낀 하루였다.

고등부수련회를 마치고

"놀이시간 대신 성경공부라뇨?"

유수진(고등부 3학년)

고등학생으로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인지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우선 고3이라는 부담이 계속 나를 쫓아다녀 수련회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 그 하나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에 가려니 이런 주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수련회에서의 재미를 먼저 찾았던가 보다. 예전에 들어있던 게임이나 물놀이 시간이 모두 성경공부로 채워져서 솔직히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다녀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음을 알았다.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회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첫째 날 아이들은 찬양

을 목이 쉬도록 너무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둘째 날 찬양시간에는 음정과 박자가 전혀 맞지 않았다. 원 목에 전날과 똑같이 찬양을 하려니 목에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었기에 그 소리들은 내 귀에 천사들의 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다.

그리고 난 후 기도회 시간. 모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이들은 자기보다는 다른 친구를 위해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남을 자기보다 우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더 눈물이 났다.

수련회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얻은 많은 것들은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집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교회의 책임 ②

누가 어떻게 이 사회의 도덕을 세울 수 있는가?

법률은 타율적인 것이지만 윤리적, 도덕적 질서는 인간의 어떤 제도나 규칙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 권위 즉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도덕 질서를 위해 국가나 사회 풍습 또는 교육 현장이나 가정을 논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종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부여된 도덕적 과제를 논술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천국 윤리를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왔다”(마3:2)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성경)보다 교권주의를, 은총보다 기복주의를, 믿음보다 인간적 지식과 지혜를 강조한 한국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말씀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으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단순한 사회병리 현상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 면전에서 책임을 못다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모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나라는 ...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17:17)

1. 의로운 건설을 위하여

여기서 말씀된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나라의 내용이 곧 그 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본래 의가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의를 좇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율법의 요구보다 더 큰 헌신을 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자가 된다.

2. 화평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과 서가, 남과 여가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백성은 화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화목제 하는 자(peace maker)가 되어야 한다.

3. 희락 사회 건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교회상을 정

립하고 하나되는 운동, 감사하는 사회 만들기, 예절과 질서를 바로 찾기 운동, 건전한 운동 및 오락을 위해 교회 시설 개방하기,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훈련원을 개설하는 일, 환경 문제·공해 문제·자연 보전의 문제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

교회를 통한 사회 도덕 구축이란 곧 사랑에 기초한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는 사랑에 필요한 도구이며 정의는 사회 제도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 도덕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사회 정의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생활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부도덕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교회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가 되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 앞에서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밝고 깨끗한 사회가 구축되며 민족 화해를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불신, 이기심, 억압과 폭력이 온 사회에 팽배하여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복음 증거에 더 힘찬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두워진 사회에 이전보다 더 큰 관심과 협력의 손을 펴야 한다.(끝)

(이 글은 이종운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등정

- ◇ 이종운 목사는 6일(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다.
- ◇ 김대형 성도(대학부)는 7월 19일 임시총회를 통해 대학부 신입회장으로 피선됐다. 김대형 성도는 그동안 회장으로 봉사하던 노창훈 성도가 유학 차 도미하게 됨에 따라 98년 남은 기간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 ◇ 오늘 점심식사는 이종운 목사·홍순복 사모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3. 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